

호황때 저축하여 불황을 극복한다.



*언뜻 보기에는 채란계사처럼 보이지만 4단 2열 케이지식 육계사로 모두 영계(1.0kg미만) 출하를 하고있다.

□ 취재/이인수 기자

병아리를 보고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병아리와 함께 인생을 같이하는 사람은 양계인 외엔 없을 것이다.

요즈음과 같이 조기에 승

부를 거는 현대인, 그러다가 열은 벽이라도 부딪히는 날이면 쉽게 좌절해 버리는 젊은이들과 힘들고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

다.

그래도 자기신념을 잃지 않고, 병아리와 함께 20여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점은 그래도 “육계업은 할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사장은 웃음지었다.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가 동력원 이듯이 국내기반이 미약한 육계산업의 경우, 즉 자금이 기름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자금을 누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느냐가 현 육계산업에 있어서 최대관건이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내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계육소비량도 '80년대에 크게 성장을 거듭하여 온것에 비해 '90년대 접어들면서 경기불황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가공식품개발 미흡으로 인해 계육 소비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소비경향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임사장은 연구하는 육계인으로 통한다.

요즈음 과잉생산으로 인해 육계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500원대로 곤두박질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육계인들의 주름살만 하나더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93년 1.1부터 미질단신선육이 수입장화 되기 때문에 국내 육계업계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기



*틈틈히 부인과 함께 여행들...

도 하다.

육계업의 특성상 자금회전율이 빠르고, 단시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반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수급의 진폭이 커 “호황과 불황”이 심한 것이 현 육계산업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 속담에 “고생끝에 낙이 있다”, “불황시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 극복의 힘으로 승화시킨다”는 말이다.

인생 20여년을 육계사업에 몸담아 오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느낀점은 호황이 오면 반드시 불황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철저한 절약정신”을 통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이 불황시에 최대한의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어룡농장 임성진(57세) 사장은 현재 경기도 포천군 어룡리에서 대지 1,500평(건평 400평) 규모에 3만수 육계농장을 경영하여 왔다.

임사장은 193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47년(11살때)에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입단하여 활동할 만큼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그후 고등학교 졸업후 '67년까지 지금의 서울 창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재업을 경영하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목재사업을 자기뜻과 상관없이 모두 정리하게 되었다. 그후 '72년 지금의 경기도 포천으로 내려와 소규모부화업을 시작하면서부

터 양계산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소규모 부화업을 경영하면서 심한 경기불황과 자금난으로 인해 시작한지 3년도 안되어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실패아닌 실패를 거듭한 것이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준 계기가 되었고, 이 시기에 절약만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화업을 정리한 후 현육계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고 단시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자본회전율이 빠르다는데 매력을 느껴 육계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70년대 육계사육 형태는 대개 8주 사육하여 출하체중 1.8kg인 하이브로가 주류를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질병은 현재보다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ND, IB가 주종을 이루었고, 간혹 AED도 발생하여 폐사율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계사육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장주인의 발자국 횡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하면서 세



*때로는 자살한 아버지가 되기도...

심한 사양관리와 철저한 질병예방을 통하여 연구·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75년 포천육계분회 부회장직을 맡아오면서 현재까지 17대 부회장직을 맡아오는 것만 보아도 육계업에 얼마나 긍지를 지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황때 저축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항상 정직하라”는 가훈에 따라 허황된 꿈보다는 항시 정직하고 또 노력만큼 댓가

를 바라면서 오로지 20여년 동안 육계사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어 남부끄럽지 않게 성장시킨 것도 임사장의 굳은 신념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금전만능주의에서 오는 젊은이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즉 쉽게 벌어 쉽게 쓰자는, 하물며 자동차 문화까지 사치가 만연돼 전셋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즐기기 위해 자동차 한대씩 굴리며 사는 세상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걱정과 한심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맞아들이 금년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양계업에 관심이 많아 가업으로 물려주는 것을 대견스러워

표1. 사료를 현찰·외상(60일 결제)구입시 발생하는 손실액(1포 25kg, kg당 260원)

	기 준	
사육수수	2만수	
출하체중	1.0kg	
사료효율	2.0	
사료소비량(1회전)	1,600포	
	현찰구입시(8%할인가능)	외상구입시(60일결제)
총사료소비량(5회전)	8,000포	8,000포
년간사료구입금액	47,840,000포	52,000,000원
현찰구입시절약금액	4,160,000원	

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육계사업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농장의 성과를 좌우하는 생산비를 분석하여 보면 1차생산비와 2차생산비를 분류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사육시 필요한 초생추, 사료, 약품비 등 기타 비용이 1차 생산비에 해당되고, 둘째 부대비용, 즉 활동비(자동차유지비, 식대비, 커피값 등), 기타비용이 2차생산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1, 2차 생산비가 육계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대부분의 육계인들은 2차생산비가 육계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한다.

계사형태를 언뜻 보기엔 채란계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4단 2열 케이지식 육계사로서 출하체중 1.0kg미만인 영계출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또 상인과 유대강화를 가져 호황과 불황시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룡농장의 경우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료를 현찰과 외상(60일 결제)구입시 발생하는 손실액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만약 육계 2만수가 입추에서 출하까지 총사료 소비량이 약 1600포, 출하체중 1.0kg, 사료효율 2.0이라 하면 사료구입시에 현찰로 구매할 경우 8% 할인이 가능하고, 외상구입시 모두다 지

급한다고 보았을 때 년5회 전시 총사료소비량 8,000포 이라면 현찰구입시 절약금액이 4백16만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자금이 없어 현찰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담보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매하고 대출받은 은행에 그만큼 적금을 털어줌으로써 변제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앞서언급한 바와같이 1차생산비 보다는 2차 생산비가 육계생산비를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육계인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일이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섭리의 이치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흙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농장을 경영해 왔고, 또 앞으로 가업으로 물려줄 작업을 하고 있다. 완전자동화 계사보다는 자기농장에 알맞은 경영방법을 선택,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길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농장을 나왔다.

양계